

세기의 라이벌 '고흐 VS 고갱' 레플리카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명절 연휴 기간 휴관 없이 운영... 도슨트 프로그램 1일 4회 진행

군산예술의전당이 현재 선보이는 기획전시 세기의 라이벌 '고흐 VS 고갱'을 설 연휴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휴관 없이 운영한다.

세기의 라이벌 '고흐 VS 고갱' 레플리카 전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운영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관객이 방문했으며, 누구나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교육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이다.

19세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작품과 인성과 서사를 흥미롭게 풀어낸 전시회는 전문 안내인이 작품을 해설해주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작품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밤이 밝히는 밤에, 해바라기를 나만의 색채로 다시 그려볼 수 있는 체험 △전시 관람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념 촬영 등 작품을 더욱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이고 있다.

군산예술의전당 박현자 관리과장은 "설 명절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즐기며 따뜻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명절 휴일 기간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슨트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11시·



군산예술의전당이 현재 선보이는 기획전시 세기의 라이벌 '고흐 VS 고갱'을 설 연휴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휴관 없이 운영한다.

오후 2시·오후 3시·오후 4시 총 4회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설 명절 ‘K-전통문화’ 체험 즐겨요”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15-16일 마술쇼·농악 공연·전통놀이 등 다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통문화와 현대적 콘텐츠를 결합한 '설 명절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설 연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과 공연을 즐기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휴 기간에는 친환경 메시지를 담은 발광

다이오드(LED) 마술쇼와 신명 나는 전통 농악 공연이 무료로 펼쳐진다. 발광 다이오드(LED) 마술쇼는 실내 공연장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열리며, 전통 농악 공연은 야외무대에서 오후 1시에 진행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삼례떡 만들기 △풍자화(캐리커처) 그리기 △K-전통문화 체험(호롱불·배씨떡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웃

놀이, 투호,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을 통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이와 함께 삼례문화예술촌 전시관은 설 당일을 제외한 명절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되며, 총 3개소 전시관에서 상설 전시를 진행한다.

제1전시관에서는 일러스트 특별전, 제3전시관에서는 현대회화 지역작가전, 제4전시관에서는 천철석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목공예 전시를 만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설 명절 특별 프로그램은 전통의 즐거움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 삼례문화예술촌이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따뜻한 문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민간 소공연장 청년인력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도내 민간 소공연장의 운영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소공연장 청년인력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획부터 홍보, 행정, 무대 운영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도내 민간 소공연장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민간 소공연장 10개소이며, 재단은 선정된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청년인력 1명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된 청년들은 공연 현장에서 기획·홍보·행정 지원 등 실무 전반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게 된다.

이는 청년들에게 지역 내 안정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소공연장에는 젊은 감각

과 활력을 더해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상생 모델로 기대된다.

공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오는 24일 오후 5시 59분이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소공연장은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소중한 공간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창의적 에너지가 공연 현장에 녹아들어 전북 공연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전시

7월 19일까지 '버라이어티 베어' 시리즈 개최

정읍시립미술관이 2월 12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시민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인 '버라이어티 베어(Variety Bears)'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전시실과 3전시실에서 진행되며 기존의 정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과 사운드, 독창적인 공간 연출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험 중심'의 전시로 기획됐다.

전시의 핵심 콘텐츠인 'BOOMING BEAR' 미디어아트 작품은 자연 풍경 속에 등장하는 거대한 곰 인형이라는 이색적인 설정을 담고 있다.

자연과 대비되는 낯선 존재의 등장은 관람객에게 강렬한 시각적 즐거움과 유쾌한 상상력을 전달하며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전시는 기간에 따라 총 세 가지 시리즈로 순차 공개된다.

△첫 번째 시리즈 '겨울, WINTER'는 2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두 번째 시리즈 '봄, SPRING'은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세 번째 시리즈 '젤리, GUMMY'는 5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어진다.

전시 공간 곳곳에는 즐길 거리도 풍성하다. 미술관 입구와 1층 리운지 등 3곳에 포토존이 조성됐으며 3전시실에는 전시와 연계된 교육 체험존이 마련됐다.



특히 1층 리운지는 눈 속을 거니는 듯한 공간 연출과 포근한 겨울 풍경으로 꾸며져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계절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장 마감 오후 5시 30분)이며, 설날 당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5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 뜻밖의 미술관, 4명 작가 참여 기획초대전

그룹 포지노마드 '접혀지고 포개지고 머무르다 지나간다' 개최

전주 원도심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이 2026년 기획초대전으로 그룹 포지노마드의 전시 '접혀지고 포개지고 머무르다 지나간다'를 선보인다.

전시는 12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며, 김누리·서수인·엄수현·호세리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작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네 명의 작가가 자신의 지난 시간과 다시 마주하는 자리다. 미숙하고 불완전해 보일 수 있는 초기 작업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펼쳐 보이며, 그 시간들이 현재 작업을 지탱해온 감각의 층위였음을 조용히 드러낸다. 전시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미 지나갔다고 여긴 시간은 과연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나를 이루는 또 하나의 층위로 남아 있는 것일까.

작가들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시간의 결을 작품에 담아낸다. 접히고 포개지며 다시 열리는 순간들은 관람객 각자의 기억과 감각을 자연스럽게 소환한다. /이만호 기자

특히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고전에 머물지 않는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며 새로운 감각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누군가에게는 마주하기 어려웠던 과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뜻밖의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성혁 뜻밖의 미술관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완성된 결과보다 시간의 축적과 흔적에 주목하는 자리"라며 "작가 개인의 서사를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감각과 맞닿아 있다. 2026년의 시작, 관람객들이 각각의 시간을 다시 펼쳐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2길 3-6 뜻밖의 미술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 설 명절 기간에는 휴관한다.

이번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뜻밖의 미술관(063-287-1300)으로 하면 된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투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